

연구논문

조사데이터 병합을 통한 양적연구의 확장 가능성 탐색: 한부모 가구유형과 아동의 우울,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

안선경* · 오수경** · 정익중***

조사데이터의 활용은 증거기반 연구의 축적과 발전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특정 경험이나 특징을 지닌 소수집단에 대한 충분한 표본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어 양적연구의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조사데이터 병합을 통한 양적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전국 규모의 국가승인통계 중 아동·청소년 대상의 세 개 패널데이터를 병합하여 한부모 가구유형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총 310명의 아동 표본을 확보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자가정 30명, 부녀가정 35명, 모자가정 122명, 모녀가정 123명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른 아동발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 수준에 차이를 보였으나 사회적 위축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의 실증적 규명을 위해 병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 소수 취약 집단에 대한 양적연구의 다각적(triangulation)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분야별 또는 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병합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나아가 조사연구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조사데이터 병합, 한부모 가구, 아동발달, 우울, 사회적 위축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ask8806@ewha.ac.kr),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sukyung528@gmail.com), 공동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ichung@ewha.ac.kr), 교신저자.

I. 연구의 필요성

증거기반 연구의 축적과 발전은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조사데이터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다(이봉주 2020; 채구묵 2002). 과거에는 연구자들이 대부분 직접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결과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데이터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공개함에 따라 2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구 2017).

사회적으로 새롭게 조명되거나 시의성이 있는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현재 시점에 적합한 조사데이터를 구축하지만,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된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의 활용도가 낮다. 반면 연구가 많이 진행된 분야나 대상 또는 이미 조사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매번 새로운 조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한편, 조사데이터의 효용가치는 약 10년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 내 측정변수의 개념적 차이나 변화로 인해 활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김지현 2012). 또한, 현재의 다양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변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의 활용이 어려운 한계도 따른다. 더욱이 과거에 구축된 조사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잠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 활용에 점차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조사데이터는 조사문항에 따라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는 집단과 소수집단의 특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학대유형별로 개별 사례를 분석할 수 있으며, 자살 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시도 횟수에 따라 세분화된 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을 동시에 행하는 아동·청소년 사례,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복합적 경험을 가진 사례, 가정폭력 유형별로 피해를 경험한 여성 사례 등은 조사데이터를 통해 특정 집단의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조사데이터 활용은 소수집단의 특성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

수집단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소수집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질적연구 방식에 의존해 왔으며, 양적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양적연구의 부족은 주로 조사데이터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단일 조사데이터 내에서 소수집단의 응답은 종종 극단값으로 처리되어 연구에 활용되지 못하거나, 평균값으로 상쇄되어 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단일 조사데이터에서 소수 취약 집단만을 추출하여 연구하고자 하더라도 비교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수집단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화 연구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과 변수를 세분화하여 새로운 조사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제가 뒤따른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심층적 연구 또는 연구의 확장을 위해 기존의 단일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를 결합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상관관계 분석이나 예측 모델링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일부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데이터 병합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사데이터 병합'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데이터 병합은 두 개 이상의 단일 조사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함으로써 심층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즉, 특정 경험이나 특징을 지닌 소수집단에 관해 충분한 사례 수를 확보함으로써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세분화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더욱이, 다양한 조사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존의 조사자료가 갖는 연구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데이터 병합을 통한 양적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한부모 가정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데이터 병합을 통해 연구문제의 검증이 가능한지 시도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아동 발달의 차이를 다루며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간의 이질성에 집중해 왔다(남영옥 2010; 박주희 2016; 오승환 2001; 이미리 외 2015; Motamedi Sharak et al. 2016). 그러나 한부모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고려할 때, 한부모 가정 내에서도 이질성을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승인통계 중 전국 단위로 조사·수집된 아동·

청소년 대상 패널조사인 한국아동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다문화청소년패널을 활용하여 한부모 가정의 아동 데이터를 추출 및 병합하고 한부모 가구유형(부자가정, 부녀가정, 모자가정, 모녀가정)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아동의 우울, 사회적 위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조사데이터의 활용과 한계

조사데이터는 사회과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어 학문적 토대를 다지며, 증거기반 정책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정익중 2017). 조사데이터는 대표적으로 특정 주제에 따른 실태조사 차원의 일회성 횡단데이터, 매년 조사하는 반복횡단 데이터, 모집단 기반 표본 추출하여 다년간 실시되는 종단데이터 등의 유형이 있다(교육부 2024a; 한국복지패널 20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그러나 특정 목적에 의한 조사데이터의 경우, 타 학문 연구에서의 변수 활용도가 낮고,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유효성이나 활용 가치 또한 낮아지게 된다.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데이터는 아동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자료 수집 시에는 확률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층화다단계표집 등을 활용한다(한국복지패널 20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그러나 수집된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일반 가정의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빈곤가정 아동이나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특정 환경에 처한 아동들의 표본은 상대적으로 적어, 소수집단 아동·청소년의 발달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같이 아동이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파악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자, 부녀, 모자, 모녀 등 세분화된 한부모 가구 유형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한부모 가정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연구 수행이 어려우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자료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장진희 2017).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정책적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해당 자료는 한부모와 가구환경 중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조사자료의 특성상 아동의 발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3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의성 확보나 발달의 연속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부모 가정의 아동발달과 관련된 양적연구는 가구유형을 세분화하기보다 부자·모자가정으로 부모의 성별에 따른 가구유형 분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조사비용의 문제로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학교 단위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한부모 가정의 아동발달을 파악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강부자 외 2012; 김재엽·양세정 2013; 석주영·박인전 2009; 이혜림·이동훈 2016; 손은주·박응임 2017; 박응임 외 2018).

이러한 조사데이터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단일 조사데이터를 병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연구목적에 따라 두 개의 단일 조사데이터에서 연구대상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연구문제에 따라 활용할 변수의 조사 문항, 측정 수준, 이상값 등을 점검하여 병합 가능성을 평가한 후 전처리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 병합은 조사데이터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연구자의 다양한 분석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이다. 특히 조사데이터 병합은 한부모 가정, 빈곤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양육환경에 있는 아동이나, 학대, 아르바이트 등 특정 경험을 지닌 아동을 추출하여 분석가능한 표본을 확보한 후 발달을 실증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가치가 크다.

한편 데이터 특성인 기준파일 및 연계파일의 종류(행정데이터, 조사데이터)와 매칭방법(exact matching, statistical matching)에 따라 8가지 유형을 분류하였다(오미애 외 2014). 정확한 매칭(exact matching)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해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는 행정 데이터 간의 연계에 주

로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없다고 평가된다(오미애 2019). 위 매칭에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표준화 작업을 통해 한 사람의 데이터를 연계하기 때문에 각 데이터의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두 데이터가 다를 경우 성별 등과 같이 입력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변수를 기준으로 확률값을 산출하여 레코드의 일치 정도를 확인한다(Paass 1985). 반면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은 연계하고자 하는 두 개 이상의 데이터 결합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변수의 고유식별정보 혹은 개인식별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한 개체 확인이 어려울 때 유사한 개체를 찾아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이다(오미애 2019). 이처럼 데이터 결합 혹은 데이터 매칭 접근은 실제 선행연구에서 비행이나 빈곤, 출산 및 양육 등 특정 대상을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패널데이터와 행정데이터를 매칭하거나(강현구 외 2014; 주영선·정익중 2019; 2020), 의료 패널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고자 건강보험공단 등 행정데이터를 연계하여 연구 신뢰도를 높인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오미애 2015). 특히, 최근 정부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의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데이터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교육부 2024b).

본 연구는 데이터 특성 유형에 따르면 기준파일과 연계파일이 모두 조사데이터인 경우는 통계적 매칭 범주에 속하지만, 정확 매칭과 통계적 매칭의 방법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조사데이터 병합의 기준 및 연계파일을 모두 전국 단위로 조사·수집된 아동·청소년 관련 패널데이터로 선택하여 유사한 성격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가구유형을 기준변수로 하여 한부모 가구의 아동 및 동일한 발달단계의 표본을 추출한 후 연구문제와 관련된 공통 활용 변수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단일 패널데이터의 케이스를 모두 합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조사데이터 병합은 정확 매칭과 통계적 매칭에 비해 연구대상 및 활용 변수가 명확하면서도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소수집단의 양적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전국 규모의 서로 다른 국가승인통계세 개의 조사데이터 내 한부모 가정이라는 동일 특성을 가진 아동 표본을 병합하는 방법 즉, ‘조사데이터 병합(Merge-Based Survey Data : MBSD)’ 구축을 통해 한부모 및 아동의 성별을 고려한 가구유형에 따른 아동의 발달 차이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2. 한부모 가정과 아동발달

한부모 가정이란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혹은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배우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거나, 교정 및 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한다(법제처 2023). 이러한 법적 정의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유형은 주로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비롯해 조손가정, 청소년 부·모자가정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전체 한부모 가구유형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복지통계 2022; 여성가족부 2021). 여기에 아동의 성별을 고려한다면 모자·부자가정의 유형은 모녀가정, 모자가정, 부녀가정, 부자가정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송수정 2014).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는 약 1,494천 가구로(통계청 2023), 이중 한부모와 18세 이하 아동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부자(녀)가정이 73천 가구(38.4%), 모자(녀)가정이 190천 가구(61.6%)로 총 263천 가구에 달한다. 즉, 아동의 성별을 고려한 한부모 가구유형은 모자(녀)가정이 부자(녀)가정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는 경제적 책임, 고립된 양육, 가사노동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데(김은지 외 2015; 이다미 2022), 그중에서도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된다(이정애 2022). 이러한 어려움에서 비롯된 한부모의 부정적 정서는 자녀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Larson & Gillman, 1999). 모든 한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낮은 학력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장시간 근로 때문에 자녀 돌봄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은지 외 2018; 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점에서 한부모 가정의 양육환경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김영란·안민주 2005; 석소현·신성희 2010). 특히, 아동의 발달이나 건강수준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안진상·김희정 2013; 이봉주 외 2010), 한부모 가정이면서 규모가 작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지역에 거주한다면 그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김세원·김선숙 2012).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정이면서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도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이현주 2013). 이러한 연구들은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가족위기모델(family crisis model)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는 자녀의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아동의 심리적 위기감,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긴장감을 초래할 수 있다(Kroese et al. 2021). 실제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양부모 가정의 자녀보다 우울, 회피행동 및 사고 차원의 두려움과 같은 사회불안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남영옥 2010; 오승환 2001). 해외 연구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보다 우울, 불안, 반사회적 행동, 주의력 결핍 등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Motamedi Sharak et al. 2016). 이는 한부모 가정에서는 부모 간 역할 분담이 어렵고, 가족기능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박주희 2016; 이미리 외 2015).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 우울, 사회적 위축은 내재화 문제에서도 특히 주목하는 요인이다(김재엽 외 2012; 김재엽·양세정 2013; 이정애 2022; Hoyt et al. 1990). 남아는 내재화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외현화 문제가 두드러지지만(Amato & Keith 1991; Wolchik et al. 2002), 여아는 내재화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보고된다(Emery 1999). 또한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동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응임 외 2018; 엄연주·김수영 2016; 이동훈 2016). 즉, 가족은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기초적이자 핵심 체계로 기능하지만(Amato & Keith 1991),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면 아동이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라 우울, 사회적 위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로는 한부모의 성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자가정은 자녀 돌봄 및 관계적 취약성이 두드러졌고, 모자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어(여성가족부 2021)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아동의 우울,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부모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정서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고(이주리 2008), 특히 아동이 초기청소년인 경우 급격한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겪게 되므로(정익중 2007), 이 시기에 한부모의 역할과 성별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중요할 수 있다(김재엽·양세정 2013). 예를 들어, 부녀가정에서는 자녀의 월경과 같은 성정에 민감하게 소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Kalman 2003). 즉, 한부모 가정의 보

호자의 성별에 따라 당면한 어려움이나 양육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동의 발달 결과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부자가정의 아동이 모자가정의 아동보다 우울이 더 높다고 하여 모자가정에서의 자녀 발달이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되는(김재엽·양세정 2013; 오승환 2001; Hawkins et al. 2006), 반면 한부모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나(서지영 2002), 부자가정의 아동의 적응력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서지영 2002; 장덕희·황동섭 2009).

지금까지 한부모 가정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과거 ‘한부모’라는 가구유형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아동발달 차이에 주목하여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주장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다(김소진 2016; 김현숙 2015; 민하영 외 2008; 석소현·신성희 2010; 이경은·이주리 2008). 질적연구의 경우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을 간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많았고(강영심·천성문 2014; 권주희 2020; 류금란·최은실 2020; 한정원 2014), 양적연구의 경우 한부모 가구와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자료수집하여 수행한 연구가 많았다(박응임 외 2018; 석주영·박인전 2009; 손은주·박응임 2017; 이혜림·이동훈 2016).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구유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한부모 가구를 단일화하여 아동발달을 살펴보거나, 가구유형을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으로만 분류하여 살펴보았다(강부자 외 2012; 김재엽·양세정 2013; 김현숙 2016; 박주희 2016; 오승하·문수경 2015). 즉, 한부모와 아동의 성별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와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자가정, 부녀가정, 모자가정, 모녀가정 등 한부모 가구유형이 아동의 우울, 사회적 위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조사데이터 병합 및 연구방법

1. 조사데이터 병합을 활용한 분석자료 구축방법

본 연구는 조사데이터 병합을 통한 양적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조사데이터를 병합하여 한부모 가구유형이 아동의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사자료는 원천에

따라 구별되는데, 1차 자료는 연구자가 현재의 연구를 위해 직접 조사하거나 수집한 원시 데이터로, 직접 설문조사 등으로 얻어진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2차 자료는 다른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된 데이터이거나 과거에 다른 연구를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로 현재 시점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며 패널자료가 그 예가 될 수 있다(김은정·남태우 2012; 채구묵 200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사기관에서 수집된 2차 패널데이터를 병합하여 재구조화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3차 자료로서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즉, 조사데이터 병합을 통해 이미 수집된 여러 데이터를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Scerbo et al. 2001).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연구대상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종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동일한 연구대상이 매년 응답한 데이터를 병합하지 않고,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특정 조사시점에 응답한 데이터를 병합했다. 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세 개의 패널데이터의 특정 조사시점에 응답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세 개의 패널데이터에서 가구유형 변수를 기준변수로 삼고 한부모 가구로 응답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추출하였다(오미애 2019). 이후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공통변수를 선택한 후, 각 변수의 척도 응답 범주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변수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표준화된 값(Z-score)으로 변환한다. 전처리가 완료된 세 개의 패널데이터에 순차적으로 케이스를 추가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하였다. 이처럼 조사데이터 병합을 통해 분석 자료를 구축하면, 여러 조사에서 수집된 한부모 가정의 아동 표본을 통합함으로써 표본 크기를 증가시키고, 표본오차를 감소시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한 한부모 가구유형(부자가정, 부녀가정, 모자가정, 모녀가정)에 따른 아동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개별 조사데이터에서 소수집단을 세분화하여 연구하기에 어려웠던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어 비교적 정교하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조사데이터 병합을 통한 분석자료 구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패널데이터에서 활용할 데이터 차수(wave)와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 데이터가 포함된 패널의 차수를 선택하고, 가구유형을 기준변수로 삼아 한부모 가정으로 응답한 사례만을 연구대상으로 추출하여 동질적인 성격을 갖는 표본을 확보하였다. 또한 한부모 및 아동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추출하여 한부모 가구유형을 분류하였다.

둘째, 연구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분석에 활용할 변수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에 맞춰 각 패널데이터에서 측정 개념이 동일한 척도의 변수들을 검토하여, 독립 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각 패널데이터별로 변수의 척도, 문항 수, 응답 범주(범주형 및 연속형), 역문항, 결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종 변수를 선정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에 대한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각 패널데이터에서 활용할 변수 중 역문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였다. 응답범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응답범주를 일관되게 범주형 또는 연속형 형태로 재코딩하였다. 이어서 연구모형과 분석방법에 적합하게 더미변수 및 가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처리 과정이 완료된 후에는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점검하여 정규성을 확인하고, 변수 간 신뢰도를 점검하였다. 두 개 이상의 척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전처리했으므로, 이 과정에서 각 변수의 신뢰도 계수와 척도 내 문항별 CITC(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통계량을 함께 점검하였다. CITC 통계량은 척도 내 문항과 전체 항목 간 수정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다중 항목 척도의 속성을 분석할 때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CITC 값이 .30 이상이면 해당 변수의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된다(Lacobucci & Churchill 2018; Lai et al.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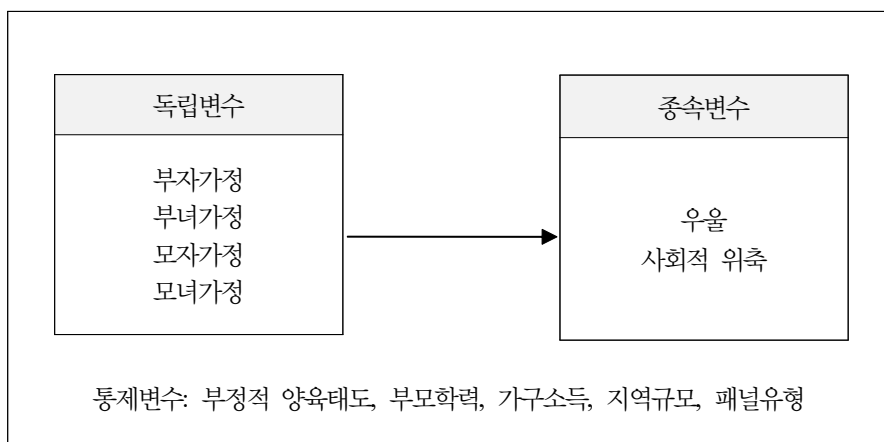
넷째, 분석에 활용된 연속형 변수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화 값(Z-score)으로 변환하였다. 표준점수(standard score)는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각 값이 표준편차에 대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차원 없는 값으로, 서로 다른 척도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동질적인 점수로 변환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오성삼 2007; Borenstein et al. 2021). 이를 통해 데이터값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비교 및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연속형 변수로 구성된 종속변수의 경우, 패널데이터별로 동일한 수준의 속성을 지닌 변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동일성을 검정하였다.

다섯째,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위의 절차에 따라 전처리가 완료된 각 패널데이터를 케이스 추가 방식으로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통합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단일 조사데이터를 병합하여 한부모 가정 아동 표본을 확

보하고자 하였다. 국가승인통계이자 전국 단위로 조사·수집된 아동·청소년 대표 패널인 한국아동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다문화청소년패널을 활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데이터이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한부모 가구유형과 발달단계의 특징을 가진 연구대상으로 병합이 가능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위 조사데이터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측면에서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겪는 시기이므로(정익중 2007), 이 과정에서 한부모의 성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고(김재엽·양세정 2013), 예방적 개입이 가능한 후기 아동기인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을 총 310명의 조사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측정도구 측면에서는 각 조사데이터의 발달지표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며 데이터 병합이 가능한 변수를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구유형을 부자, 부녀, 모자, 모녀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1) 한국아동패널: 12차

육아정책연구소(2022)에서 조사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Elder의 생애이론을 기반으로 설계된 아동과 부모 및 가족의 특성, 교육, 보육, 학교, 지역사회, 정책 등 광범위한 요소들을 조사하는 자료로서 아동 발달을 살펴보기 위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한국 아동패널 자료는 전국 의료기관의 명부를 추출 틀로 하여 1차 의료기관을 추출, 2

차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산모를 대상으로 설문참여에 동의한 가구 및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이다. 2019년에 조사된 12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전체 1,398명의 아동 중 결측을 제외한 부자(녀)가정, 모자(녀)가정 등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 5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 초4 패널 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2018 자료 중 초4 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은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별 비례 배분 후 표본학교를 추출한 뒤 무작위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2,607명의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표성 있는 패널자료이다. 연구대상은 2019년에 조사된 초4 패널 2차 자료의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부모 가정의 아동 246명 중 부자(녀)가정, 모자(녀)가정에 해당하는 17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다문화청소년패널 1기: 2차 본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는 개인 및 환경요인, 다문화 관련 요인의 특성을 조사한 자료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발달과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이 조사는 한국어가 서툰 부모를 위해 9개의 외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제공하고 아동에게는 한국어 설문지를 제공하여 전문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앞서 다른 패널자료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기 위해 2012년에 조사된 다문화청소년패널 1기 2차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부자(녀)가정, 모자(녀)가정에 해당하는 아동 8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우울, 사회적 위축

(1) 우울

한국아동·청소년패널과 다문화청소년패널은 김광일 외(1984)의 간이정신진단검

사 중 우울 13문항 중 10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은 안현의·안창규(2017)의 NEO성격검사 중 신경성-우울의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남들보다 불행한 사람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다문화청소년패널, 한국아동패널 순으로 각 척도의 Cronbach's α 는 .906, .873, .652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우울 변수는 평균값을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한 후 활용하였으며, 변수에 대한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패널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ITC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3 미만의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 사회적 위축

한국아동·청소년패널과 다문화청소년패널은 김선희·김경연(1998)의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중 사회적 위축 5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등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은 안현의·안창규(2017)의 NEO성격검사 중 신경성-사회적 위축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친구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사람들에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매우 조심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패널 척도의 Cronbach's α 는 .887, .914, .731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사회적 위축 변수는 평균값을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한 후 활용하였으며, 변수에 대한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패널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ITC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3 미만의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 독립변수: 한부모 가구유형

본 연구에서 한부모 가구유형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정으로 응답하거나 가족구성 유형에 이혼, 사별, 별거, 조손가정으로 응답한 케이스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아동과 보호자가 응답한 쌍체데이터를 확인한 후, 보호자와 아동의 성별에 따라 4개의 가구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가구유형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거나 결측값이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구유형에 대한 코딩은 모자가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부자가정, 부녀가정, 모녀가

정의 3개의 가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 패널유형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 패널유형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김태명·이은주(2017)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중 부모양육태도척도(PSC1_KA) 타당화 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등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는 .849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은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방치 5문항 및 아동학대 문항 일부를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방임’ 7개 문항 중 CITC 통계량 0.3 미만의 2개 문항을 제외한 총 5개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는 .703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은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발췌하여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있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나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있다’ 등 2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Cronbach’s α 가 .486으로 활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 최종 분석에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있다’ 1개 문항만 활용하였다.

각 패널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수는 평균값을 표준화 값으로 변환하여 활용하였으며, 한국아동패널을 제외한 각 패널의 최종 활용 변수의 CITC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3 미만의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하=0, 대학교 졸업 이상=1로 코딩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소득 없음~200만 원 미만=1, 2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2, 5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3, 800만 원 이상~=4로 코딩하였다. 지역규모는 1=읍·면지역, 2=중소도시, 3=대도시로 코딩하였다. 패널유형의 경우, 각 패널조사의 특성 및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아동패널(2019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9년), 다문화청소년패널(2012년) 등 세 가지 범주로 생성하였다. 가장 많은 사례 수를 차지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9년)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개의 패널을 가변수 형태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패널유형 변수는 조사 연도 및 다문화 가정 유무와도 동일한 코딩 값으로, 패널유형 변수의 통제를 통해 각 패널에 따른 특성, 조사 연도별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아동 발달 차이, 다문화 가정 여부에 따른 영향도 함께 통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사데이터 병합을 통한 양적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한부모 가구유형이 아동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조사데이터 병합 절차를 통해 활용변수의 독립성과 각 변수의 왜도 및 첨도, 종속변수인 연속형 변수의 정규성 등 기본 가정 충족을 확인하였다(김태근 2006; Mertler et al. 2022). 첫째, 각 패널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분석에 활용되는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수행하였다. 둘째,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 사회적 위축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한부모 가구유형이 아동의 우울,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6.0을 활용하였다.

IV. 병합된 조사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1. 병합 데이터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의 병합 데이터의 특성을 자료에 따라 살펴보면(<표 1>), 표본의 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55.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패널(26.8%), 한국아동패널(18.0%)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패널데이터별로 유사한 수준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거주하는 지역규모의 경우 전체의 86.4%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였고 패널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소득 없음에서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8.1%였고, 다음으로 2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2.3%로 나타나,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을 패널별로 살펴보면 한국아동패널은 78.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90.1%가 500만 원 미만에 속하였고, 다문화청소년패널의 경우에는 소득 없음에서 200만 원 미만에 속하는 아동이 90.4%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부모학력의 경우,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 모두 대학교 졸

업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3개의 패널자료가 유사하였다. 즉,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분야의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한국아동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다문화청소년패널에서 조사된 한부모가구 아동의 일반적 특징이 비교적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병합 데이터의 일반적 특징

(단위: n(%))

변수		전체	한국아동패널	한국아동· 청소년패널	다문화 청소년패널
		310(100.0)	56(18.0)	171(55.2)	83(26.8)
아동 성별	남자	152(49.0)	26(46.4)	87(50.9)	39(47.0)
	여자	158(51.0)	30(53.6)	84(49.1)	44(53.0)
지역 규모	대도시	134(43.2)	22(39.2)	87(50.9)	25(30.1)
	중·소도시	134(43.2)	31(55.4)	61(35.7)	42(50.6)
	읍·면지역	42(13.6)	3(5.4)	23(13.4)	16(19.3)
가구 소득	소득 없음~ 200만 원 미만	149(48.1)	9(16.1)	65(38.0)	75(90.4)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31(42.3)	35(62.5)	89(52.1)	7(8.4)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18(5.8)	5(8.9)	12(7.0)	1(1.2)
	800만 원 이상~	11(3.5)	7(12.5)	4(2.3)	-
	결측	1(0.3)	-	1(0.6)	-
아버지 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	49(75.4)	10(58.8)	37(82.2)	2(66.7)
	대학교 졸업 이하	16(24.6)	7(41.2)	8(17.8)	1(33.3)
어머니 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	171(69.8)	31(79.5)	96(76.2)	44(55.0)
	대학교 졸업 이하	74(30.2)	8(20.5)	30(23.8)	36(45.0)

2.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징의 차이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징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른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한부모 아동은 전체 310명으로 부자가정 30명(9.7%), 부녀가정 35명(11.2%), 모자가정 122명(39.4%), 모녀가정 123명(39.7%)이다. 이중 모자·모녀가정이 245명(79.1%)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한부모 가구유형 모두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은 부자, 부녀가정의 경우 2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미만이 각 79.9%, 60.0%로 가장 많았고, 모자, 모녀가정은 소득없음에서 200만 원 미만이 각 59.9%, 54.4%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부자(녀)가구에서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한부모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1)와 유사한 결과이며,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라 가구소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학력은 모든 가구유형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가장 많았다.

<표 2>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징의 차이 (단위: n(%))

변수		전체	부자가정	부녀가정	모자가정	모녀가정
		310(100.0)	30(9.7)	35(11.2)	122(39.4)	123(39.7)
아동 성별	남자	152(49.0)	30(100.0)	-	122(100.0)	
	여자	158(51.0)	-	35(100.0)	-	123(100.0)
지역 규모	대도시	134(43.2)	13(43.3)	14(40.0)	50(41.0)	56(45.5)
	중·소도시	134(43.2)	12(40.0)	14(40.0)	56(45.9)	52(42.3)
	읍·면지역	42(13.6)	5(16.7)	7(20.0)	16(13.1)	15(12.2)
가구 소득	소득 없음~ 200만 원 미만	149(48.1)	2(6.7)	7(20.0)	73(59.9)	67(54.4)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31(42.3)	24(79.9)	21(60.0)	40(32.8)	46(37.4)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18(5.8)	2(6.7)	3(8.6)	7(5.7)	6(4.9)
	800만 원 이상~	11(3.5)	2(6.7)	3(8.6)	2(1.6)	4(3.3)
	결측	1(0.3)	0(0.0)	1(2.8)	0(0.0)	0(0.0)
부모 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	220(71.0)	22(73.3)	27(77.1)	89(73.0)	82(66.7)
	대학교 졸업 이하	90(29.0)	8(26.7)	8(22.9)	33(27.0)	41(33.3)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측정된 주요 변수들의 정규분포를 검토하기 위해 최대값과 최소값, 왜도, 첨도를 살펴본 결과, 한부모 가구유형을 포함한 주요 변수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일현 2016).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우울의 경우, 부자가정의 평균은 $-.20(SD=1.07)$, 부녀가정의 평균은 $.24(SD=1.10)$, 모자가정의 평균은 $-.15(SD=.84)$, 모녀가정의 평균은 $.13(SD=1.07)$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경우, 부자가정의 평균은 $-.20(SD=1.13)$, 부녀가정의 평균은 $.14(SD=.90)$, 모자가정의 평균은 $-.04(SD=1.01)$, 모녀가정의 평균은 $.05(SD=.97)$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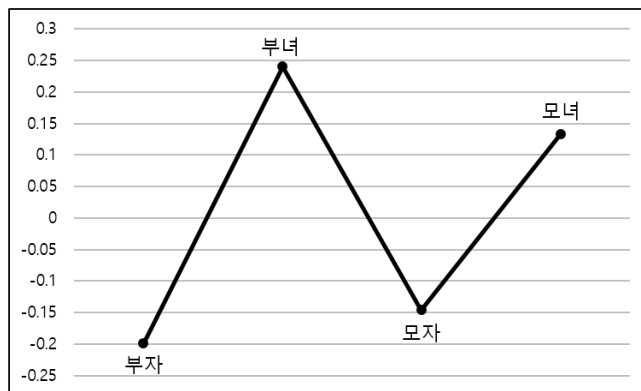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부자가정	부녀가정	모자가정	모녀가정	<i>F</i>
우울	<i>M</i>	-.20	.24	-.15	.13	<i>F</i> =2.631 (<i>p</i> =.050)
	<i>SD</i>	1.07	1.10	.84	1.07	
	Min	-1.34	-1.34	-1.46	-1.46	
	Max	2.70	3.18	2.42	2.94	
	Skewness	1.10	.65	.47	.43	
	Kurtosis	1.08	.66	-.09	-.71	
사회적 위축	<i>M</i>	-.20	.14	-.04	.05	<i>F</i> =.764 (<i>p</i> =.515)
	<i>SD</i>	1.13	.90	1.01	.97	
	Min	-1.74	-1.66	-1.66	-1.66	
	Max	2.97	2.33	2.40	2.33	
	Skewness	.88	-.12	0.20	.03	
	Kurtosis	.65	.32	-.39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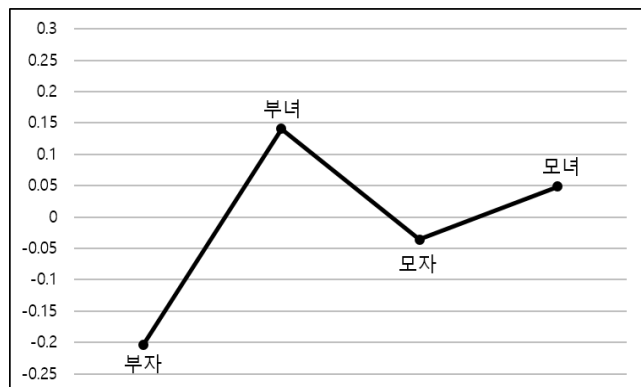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ANOVA)

을 수행한 결과, 우울은 근소한 차이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631$, $p=.050$). 사회적 위축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764$, $p=.515$).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가구유형별 평균값에서는 비교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 <그림 3>). 우울은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에서 낮게 나타나고 부녀가정과 모녀가정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아동의 성별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위축의 경우, 부자가정은 부녀, 모자, 모녀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2> 한부모 가구유형별 우울 평균 차이



<그림 3> 한부모 가구유형별 사회적 위축 평균 차이

4. 한부모 가구유형과 아동의 우울, 사회적 위축과의 관계

앞서 수행된 분산분석 결과,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 간에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주요 변수에 대한 영향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한부모 가구유형이 아동의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분산팽창지수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부모 가구유형과 우울 및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 있어 회귀모형 적합도는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8.235$, $p < .001$ / $F=2.416$, $p < .05$), 설명력($Adj R^2$)은 각 .179, .04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 계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우울의 경우 부녀가정($B=.504$, $p < .05$), 모녀가정($B=.291$, $p < .05$)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위축에는 모든 가구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가정에 비해 부녀가정, 모녀가정에서 아동의 우울이 증가하며, 부녀가정의 아동이 모녀가정의 아동보다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 내 자녀의 성별이 여아일 경우 우울 수준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B=.423$, $p < .001$ / $B=.258$, $p < .001$), 반면 이 외의 통제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패널유형 통제변수를 통해 패널 특성, 조사시기에 의한 아동의 발달 차이, 다문화 여부 등의 영향도 파악하고자 했으나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한부모 가구유형이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우울			사회적 위축		
		<i>B</i>	<i>SE</i>	<i>t</i>	<i>B</i>	<i>SE</i>	<i>t</i>
독립변수	부자가정	.019	.197	.098	-.086	.213	-.406
	부녀가정	.504	.193	2.607*	.232	.209	1.111
	모녀가정	.291	.118	2.471*	.089	.127	.704
통제변수	부정적 양육태도	.423	.054	7.777***	.258	.059	4.396***
	부모학력	.171	.119	1.443	.055	.128	.427
	가구소득	-.079	-.085	-.930	-.033	.092	-.365
	지역규모	.035	.078	.449	.010	.085	.123
	패널유형 (한국아동패널)	.135	.154	.880	.101	.166	.611
	패널유형 (다문화청소년패널)	.009	.138	.067	-.006	.149	-.040
<i>F</i>		8.235***			2.416*		
<i>Adj R</i> ²		.179			.041		

*** $p < .001$, ** $p < .01$, * $p < .05$.
준거집단: 모자가정(가구유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패널유형).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사데이터 병합을 통한 양적연구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한부모 가구유형과 아동의 우울 및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간의 이질적인 차이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한부모 가정을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내 가구유형에 따른 아동 발달의 차이를 규명하여 한부모 가정에 차별성 있는 실천 및 정책적 제도를 위한 증거기반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연구대상은 청소년기 전 단계로 예방적 개입이 가능한 초등학교 5학년

(만 11세) 한부모 가정 아동을 선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 확보를 위해 한국 아동패널 12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 초4 패널 2차, 다문화청소년패널 1기 2차 본조사 조사데이터를 병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10개의 사례를 추출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데이터 병합에 관한 합의는 다음과 같다.

조사데이터 병합을 통한 양적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단독 조사데이터에서는 한부모의 가구유형이 소수(30 사례 이하)로 나타나 양적연구의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 이 때문에 주로 질적연구로만 대변되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롭게 조사하는 대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단일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를 결합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 주로 측정 단위별 현황 파악, 상관관계 분석 또는 예측 모델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특성의 3개의 패널데이터를 선정하고, 조사데이터 병합 절차를 거쳐 연구대상의 특성(한부모 가구와 아동의 연령)을 일치시켜, 활용변수의 전처리와 표준화 값(Z-score)을 적용한 후 인과관계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시도한 조사데이터 병합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개별 조사데이터 활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수 취약집단에 대한 양적 분석의 다각화(triangulation) 접근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소수 취약집단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천적 개입과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종합하면, 조사데이터를 병합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은 기존의 다양한 개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반복횟단 조사데이터와 패널데이터 등 기존에 수집된 자료를 재구조화한 3차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특히 특정 경험을 가진 집단이나 소수집단에 관한 충분한 사례 수 확보가 필요하거나 일반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소수 취약집단의 조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더욱 심층적인 양적연구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향후 조사데이터 병합의 방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연구대상에 대한 중요 측정변수들이 각 조사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 간의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사에서 발달지표와 활용 척도의 응답 범주 등을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조사데이터 관리의 통합적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조사데이터 병합을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한 주요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유형별 아동의 우울을 살펴본 결과 모자가정에 비해 부녀와 모녀가정일 때, 즉 아동의 성별이 여아일 때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위기모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가족구조의 변화가 아동의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으로, 양부모 가정 아동에 비해 두려움과 스트레스, 불안정성을 더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한 우울은 아동 성별에 따라 다른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는 결과로 해석된다(박주희 2016; 이동훈 2016; Kroese et al. 2021). 남아는 비행과 공격성, 부적응 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 문제를, 여아는 우울·불안, 사회적 위축 등의 내재화하는 발달적 특징을 보고한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Amato & Keith 1991; Wolchik et al. 2002).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여아는 남아보다 스트레스와 외부 자극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울을 더 겪게 되며, 사춘기에 접어들수록 정서 조절의 취약성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강성률 외 2015; 박미현 외 2012; Steiner et al. 2003). 즉, 한부모와 자녀의 성별, 특히 아동의 성별을 고려한 발달 차이를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정 아동의 우울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부모 교육과 긍정적인 경험의 교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송수정 2014).

둘째,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증상은 한부모 가정 유형별 그리고 아동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한다(Emery 1999).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으로 변화하는 경험은 아동에게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박응임 외 2018; 이운정 2017)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거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특성이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구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양부모 가정에서 한부모 가정으로의 변화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과 심리적 불안정성, 사회적 편견의 인식은 아동이 위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응임 외 2018; 엄연주·김수영 2016; 이정애 2022). 특히 우울은 병리적 특성이 있어 대상의 기질이나 환경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만, 사회적 위축은 그 특성이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에 세심한 심리·정서적 관찰과 개입이 필요하다(우희정·최정미 2004).

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에 차이가 나타난 반면, 사회적 위축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통해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라 아동의 내재적 발달산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인 후기 아동기부터 한부모 가정 여아의 우울이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에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강성률 외 2015; 박미현 외 2012). 또한 사회적 위축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한부모 가구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양부모 가족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방지를 위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위축은 과도기를 겪는 청소년기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한부모 가정으로 변화된 시점 전·후로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아동기에 선제적인 심리·정서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위축과 같이 병리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은 개입의 우선순위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관점에서 가정의 변화에 기인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체계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서비스 제공 가이드에서는 부자와 모자 가구로 구분하고 있어,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른 아동 발달에 대한 차별적 접근에 한계가 있다. 부모와 아동의 성별을 고려한 가구유형별 특성과 아동 발달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향후 조사에서는 가구유형을 세분화한 조사와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부모 가정의 주양육자는 경제적 책임, 고립된 양육, 가사 노동 등 다양한 역할을 단독으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부담감과 피로감을 경험하게 된다(김은지 외 2015; 이다미 2022). 이러한 어려움은 양육에 필요한 적절한 지지와 보호를 적시에 제공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문은영 2011),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부정적 양육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Newland et al. 2013). 때문에, 한부모 대상 부모 교육 시에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발달특성과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조성할 수 있는 질적 양육 방법과 상호작용 기술 등 세분화된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은 한부모 가정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나은 환경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인경 2020).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다문화 가정이면서 한부모 가정이면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배가 될 수 있다(어정준 2021; 이현주 2013; 최승인 2014). 그러므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적극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에서는 방대

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축적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는 기존의 단일 데이터 분석으로는 얻기 어려운 정교한 분석과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연구대상과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적연구의 중요한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데이터의 병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시도를 통해 한부모 가구유형에 따른 아동 발달의 차이를 검증하고, 조사데이터 병합의 실질적 절차와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사데이터 병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차적인 차원으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실태조사 및 행정데이터 등 다양한 2차 데이터를 병합하여 재구조화된 3차 자료의 구축 가능성을 발견한 점은 연구적 가치가 크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병합과 함께 아동 발달궤적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적 연구 등 연구모형을 확장하고, 연령이나 발달단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보다 정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데이터 병합의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를 확장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연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병합하고자 하는 단일 조사데이터 수가 증가하면, 각 조사데이터에서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변수가 축소될 수 있어 변수의 다양성이 제한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데이터의 병합은 분야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조사연구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부자·김은혜·노충래. 2012. “한부모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부자·모자가정의 비교.” 《학교사회복지》 23: 29-50.
- 강영심·천성문. 2014. “사춘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1(3): 601-625.
- 강성률·박병선·이정미·최귀숙. 2015.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가족관계와 지역사회지지의 다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2: 137-157.

- 강현구·심도현·박윤현·이순형. 2014. “지역경제적 특성 및 생애주기적 특성이 어머니의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시데이터와 거시데이터 결합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육아정책연구》 8(2): 175-208.
- 교육부. 2024a.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8690>에서 2024년 9월 15일 인출.
- 교육부. 2024b. “영유아·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100443>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 권주희. 2020. “한부모 가정의 양육스트레스 경험: 단일 사례연구.” 《명상심리상담》 24: 53-65.
- 김구. 2017.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관한 평가적 고찰: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2): 57-82.
- 김광일·김재환·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선희·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원·김선숙. 2012. “지역사회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9: 127-150.
- 김소진. 2016.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8(3): 101-120.
- 김영란·안민주. 2005.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인간이해》 26: 105-124.
- 김은정·남태우. 2012. “연구데이터 수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9(2): 27-44.
- 김은지·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소영·정수연·성경.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은지·최인희·송효진·배호중·최진희·배주현·성경.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인경. 2020. 《가족유형과 아동기 인적자본 형성》. KDI정책연구시리즈 2020-03. 세

종사: 한국개발연구원.

- 김재엽·최지현·양세정. 2012. “한부모 가구 자녀와 양부모 가구 자녀의 우울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217-235.
- 김재엽·양세정. 2013.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과 한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1): 1-22.
- 김지현. 2012. “대학 내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433-455.
- 김태근. 2006. 《u-Can 회귀분석》. 서울: 인간과 복지.
- 김태명·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김현숙. 2015. “한부모 가족의 기간이 자녀의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47(3): 5-28.
- 김현숙. 2016. “한부모 가정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 성별, 한부모 기간, 교급에 따른 차이.” 《학교사회복지》 35: 275-302.
- 남영옥. 2010.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219-243.
- 류금란·최은실. 2020. “회복탄력성이 높은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8(1): 17-39.
- 문은영. 2011. “서울시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1(21): 135-174.
- 민하영·이윤주·김경화. 2008. “여성 한부모 및 양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 《가정과삶의질연구》 26(3): 15-23.
- 박미현·박경자·김현경. 2012. “초등학생 아동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5년에 걸친 발달적 변화.” 《아동학회지》 33(4): 1-17.
- 박응임·이은경·김지신·손은주. 2018. “한부모가정 아동의 부모-자녀 애착과 공유시간,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구조적 관계.” 《가정과삶의질연구》 36(4): 121-133.
- 박주희. 2016.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정서적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1-22.
- 법제처. 2023.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dt=20201211#undefined>에서 2024년 1월 8일 인출.
- 복지통계. 2022. “한부모가족 가족유형별 가구 수, 수급자 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frame.do?datsNo=16&datsClNo=1031&datsClCrit=WS>에서 2024년 1월 8일 인출.
- 서지영. 2002.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소현·신성희. 2010.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40(3): 367-377.
- 석주영·박인전. 2009. “빈곤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양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 아동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4(2): 29-50.
- 손은주·박응임. 2017. “한부모 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4): 695-716.
- 송수정. 2014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 우울의 보호요인 탐색: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1): 107-127.
- 안진상·김희정. 2013. “아동·청소년의 건강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2): 205-231.
- 안현의·안창규. 2017. 《NEO 성격검사-전문가 지침서》. 인사이트 심리검사연구소.
- 어경준. 2021. “한부모 모자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1): 159-186.
- 엄연주·김수영. 2016.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가족관계의 질,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1(3): 367-392.
- 여성가족부. 202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오미애·최현수·김용대·이용희·진재현. 2014.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 오미애. 2015. 보건복지분야 데이터 연계 필요성 및 활용방안. 《보건복지포럼》 227: 17-28.
- 오미애. 2019. “데이터 통합연계 방법 소개.” 《제6회 KOSSDA 데이터페어 -데이터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복지 데이터의 활용- 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 오성삼. 2007.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오승하·문수경. 2015. “한부모가정의 불안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의 집단 간 비교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3(4): 843-862.
- 오승환. 2001. “결손가족 청소년의 학업성취 결정요인: 일반가족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 53-80.
- 우희정·최정미. 2004.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4): 191-200.
- 육아정책연구소. 2022. 《한국아동패널(PSKC) 제8차~12차 조사데이터 사용자 지침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은·이주리. 2008.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연구: 양부모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5(2): 1-16.
- 이다미. 2022.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원가족경험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4: 729-752.
- 이동훈. 2016.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인문학논총》 42: 23-53.
- 이미리·박주희·정현숙. 2015. “양친, 한부,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과 가족환경특성 비교.” 《가정과삶의질연구》 33(4): 147-160.
- 이봉주·김선숙·김남희. 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 이봉주. 2020. “한국복지패널조사 15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 《보건복지포럼》 2020(3): 2-5.
- 이윤정. 2017.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관계망이 양육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57: 125-157.
- 이일현. 2016.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
- 이정애. 2022. “한부모 가정 아동의 위축 행동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12(2): 87-115.
- 이주리. 2008.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29(3): 115-125.
- 이현주. 2013.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23(1): 171-214.
- 이혜림·이동훈. 2016. “한부모가정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이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4(1): 25-52.
- 장덕희·황동섭. 2009. “가족보호요인이 이혼에 따른 한부모가정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모자가정자녀와 부자가정자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개발연구》 15(4): 413-431.
- 장진희. 2017. 《서울시 여성가족패널 구축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정익중. 2017. “가정의 보호아동 패널조사의 소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82-188.
- 주영선·정익중. 2019.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

- 치는가?.” 《한국청소년연구》 30(4): 33-62.
- 주영선·정익중. 2020. “지역사회 범죄 수준과 부모 양육태도가 비행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31(2): 179-204.
- 채구묵. 2002.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양서원.
- 최승인. 2014. “다문화 한부모가정 발생 전후의 삶의 과정 연구.” 《한국한부모가정학》 7(1): 1-41.
- 통계청. 2023.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9표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가구(미혼 모, 부, 이혼, 사별 포함) 전수조사결과》. <https://kostat.go.kr/unifSearch/search.es>에서 2024년 1월 8일 인출.
- 한국복지패널. 2022.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조사자료 Korean Welfare Panel Study User's Guide》.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한국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제1-7차 조사데이터 유저 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한국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23&siteId=null>에서 2024년 9월 15일 인출.
- 한정원. 2014.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효과성 연구: 한부모가족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4(2): 159-195.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mato, P.R. and B. Keith.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1-26.
- Borenstein, M., L.V. Hedges, J.P. Higgins, and H.R. Rothstein. 2021.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John Wiley & Sons.
- Emery, R.E. 1999.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Vol. 14). Sage Publications.
- Hawkins, D.N., P.R. Amato, and V. King. 2006. “Parent-adolescent Involvement: The Relative Influence of Parent Gender and Resid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125-136.
- Hoyt, L.A., E.L. Cowen, J.L. Pedro-Carroll, and L.J. Alpert-Gillis. 1990. “Anxiety and Depression in Young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1): 26-32.
- Kalman, M.B. 2003. “Adolescent Girls, Single-parent Fathers, and Menarche.” *Holistic*

- Nursing Practice* 17(1): 36-40.
- Kroese, J., W. Bernasco, A.C. Liefbroer, and J. Rouwendal. 2021. "Growing up in Single-parent Families and the Criminal Involvement of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y, Crime & Law* 27(1): 61-75.
- Lacobucci, D. and G.A. Churchill. 2018. *Marketing Research: Methodological Foundations* (12th edition).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 Lai, K.H., E.W. Ngai, and T.C.E. Cheng. 2002. "Measures for Evaluating Supply Chain Performance in Transport Logistic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Review* 38(6): 439-456.
- Larson, R.W. and S. Gillman. 1999. "Transmission of Emotions in the Daily Interactions of Single-moth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21-37.
- Mertler, C.A., R.A. Vannatta, and K.N. LaVenía. 2022. *Advanced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Practic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7rd ed.). Routledge.
- Motamedi Sharak, F., Ghobari B. Bonab, and A. Rabiee. 2016. "Behavior Problems of Students of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from Teachers' Perspective." *Quarterly Journal of Child Mental Health* 3(2): 87-96.
- Newland, R.P., K.A. Crnic, M.J. Cox, and W.R. Mills-Koonce. 2013. "The Family Model Stress and Maternal Psychological Symptoms: Mediated Pathways from Economic Hardship to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1): 96-105.
- Paass, G. 1985. "Statistical Record Linkage Methodology: State of the Art and Future Prospects."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Society. Proceedings of the 45th Session*. ISI, Voorburg NL.
- Scerbo, M., C. Dickstein, and A. Wilson. 2001. *Health Care Data and the SAS® System*. NC: SAS Institute, Inc.
- Steiner, M., E. Dunn, and L. Born. 2003. "Hormones and Mood: From Menarche to Menopause and Beyond."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1): 67-83.
- Wolchik, S.A., J.Y. Tein, I.N. Sandler, and K.W. Doyle. 2002. "Fear of Abandonment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 between Divorce Stressors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401-418.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Quantitative Research through Merging Survey Data: The Relationship between Single-Parent Household Types and Depression/Social Withdrawal of Children

Seon Kyeong Ahn

(Ewha Womans University)

Su-Kyung Oh

(Ewha Womans University)

Ick-Joong Chu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use of survey data is very useful for the accumulation and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research, but the difficulty of obtaining sufficient samples of specific experiences or special populations limits the use of quantitative research.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quantitative research through merging survey data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ccording to single-parent household type. By merging three panel data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a total sample of 310 children was obtained to enable comparison between single-parent household types. The final sample was father-son (N=30), father-daughter (N=35), mother-son (N=122), and mother-daughter (N=123). The results of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depression based on the type of single-parent household.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withdrawal. This study presents an evidence-based case for the feasibility of conducting quantitative analyses of vulnerable minority groups using merged survey data. By merging data dispersed by research field or institution, it is expected to increase effectiveness by reducing socioeconomic costs and contribute to academic development in the research field.

Key words: survey data merge, single-parent household, child development, depression, social withdrawal